

딱딱한 살림살이... 학원비까지 '깡충'

광주 2월 보습·학원비 8.3%↑ 전국 세 번째 고교생 학원비는 10.7% 폭등... 단속 失效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학부모 김모(42)씨는 지난달 말 중학교 1학년인 자녀의 영어학원에 등록하려 갔다가 깜짝 놀랐다.

이달부터 2만원 올라 17만원에 등록해야 했기 때문이다. 부담되는 액수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최고 5만원까지 올랐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오른 것은 학원비뿐만이 아니었다. 교재비까지 올라 가정 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너 달째 1%

대라고 하지만 신학기 물가는 학원비를 중심으로 뒤흔들었다. 지난달 학원·보습교육비 상승률이 5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정권 교체기를 맞아 가공식품 가격이 무더기로 오른 데 이어 사교육 시장에서도 온갖 비용이 치솟아 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학업 성취도 추락 여파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사교육시장으로 관심이 쏠렸고, 이는 학원비 인상으로

이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학원·보습교육물가는 지난해 2월보다 5.3% 올랐다. 월별 상승률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08년 1월(전년대비 5.8%)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학원·보습교육 물가는 초·중·고생 학원비로 구성되지만 음악·미술·운동·전산학원비, 가정학습지, 학교보충교육비 등도 포함한다.

지난달 광주지역의 학원·보습교육물가는 8.3% 치솟아 대구(9.5%)·경북(8.4%)에 이어 전국 세번째로 높았다. 특히 고등학생 학원비는 10.7% 폭등해 전국 평균(8.1%)을 크게 웃돌았다.

새 학기들어 일부 학원들의 학원비

기습 인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들어 광주지역 학원의 교습비 불법 인상과 관련한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비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단가를 초과한 곳은 없다"며 "다만 학원들이 교습시간을 늘려 교습비를 더 받는 곳은 있다"고 말했다.

신학기 수요가 많은 가방의 가격은 지난해 2월보다 6.7% 올랐고, 고교 교과서(11.3%), 아동복(7.7%), 유아 학습교재(4.0%)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여성 집앞까지 따라간 날치기

원룸 입구서 400만원 강탈

광주광산경찰은 6일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달아난 김모(35)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8일 11시 50분경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원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모(여·51)씨의 가방을 낚아채 달

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방 안에는 현금 320만원과 시가 100여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등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앞 CCTV를 통해 정씨가 담배를 피운 사실을 확인한 뒤 DNA를 채취, 정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검거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니원침 (8768)



니우서 여고 중퇴 10대 목매 숨져

6일 오전 5시께 나주시 노안면 야산에서 2천여 교고를 중퇴한 A(17)양이 목매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출 신고를 접수받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A양은 지난 4일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를 자신의 방에 남겨놓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메모엔 "편지가 발견될 때면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우=정철환기자 chung@



봄·봄·외벽보수 작업 봄의 따스한 기운이 느껴진 6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고층 건물에서 인부들이 로프에 매달려 외벽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커피 한 잔...” 방심이 부른 참사

진도 7명 실종 어선 충돌 LPG선 항해사 해경, 레이더 주시 태만 등 인정 영장

‘잠깐 방심 때문에...’ 진도 해상에서 대형 LPG 운반선과 충돌 전복돼 7명의 어선 선원이 실종된 사고(광주일보 5일자 1·6면, 6일자 6면)는 대형 선박 항해사의 부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커피 한잔하고 와도 괜찮겠지”라는 안전 불감증이 7명의 선원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목포해양경찰은 6일 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운항한 혐의(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등)로 한국선박(OCEANUS)호 2항해사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근무자로 조타기를 잡은 이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경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남쪽 해상에서 조업 중인 신안

선적 9.77t급 연안자망어선 대광호를 충돌해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4일 새벽 혼자 조타실 근무를 하면서 “잠시 커피를 타 마시러 조타실 뒤로 가는 바람에 해상 경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타실에서는 레이더를 통해 주변 조업 선박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야간 조업 선박들의 경우 불을 켜 놓고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운항을 불러 사건에 대한 소명을 듣고 사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이씨는 또 경찰에서 “자동 항법 장치를 켜 놓은 채 해도를 보거나 커피를 마시러 조타실 뒤에 있는 조타실 뒤편 해도실에 가곤 한다”면서 “그런 시간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은 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그러나 사고 당시 충돌 사실을 인지했는지의 여부와 관련, “입항할 때까지 충돌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은 아울러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고 후 뺑소니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편, 목포해양경은 전복된 대광호의 선미부분을 목포항으로 인양하는 한편, 사흘째 실종자 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용돈 미끼로 여고생 성추행

순천경찰, 30대 영장

“용돈 필요한 사람?” 순천에 사는 A(15)양은 지난 2011년 ‘졸복’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20km 떨어진 전주에 사는 전모(39)씨와 채팅을 하게 됐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과외를 시켜주겠다”, “대학까지 보내줄 테니 아저씨만 믿어라”는 전씨의 호의와 감언이설에 A양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도 알려줬다.

청소년 성매수 혐의 등의 전력이 있는 전씨는 지난 1월 27일 “만나서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진짜 용돈을 주겠다”는 달콤한 말과 함께 A양

을 만나러 내려왔다.

전씨는 이후 A양을 차에 태운 뒤 한적한 도로변으로 가 A양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다. 음란한 행위도 강요했다. 난생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한 A양은 저항도 못한 채 무서운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A양이 신고하려고 하자 전씨는 “신고해봐라. 학교에 알려 정학을 시켜준다”, “다치고 싶냐”는 내용으로 하루에 수십 통씩 문자와 전화로 협박했다. 순천경찰은 6일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동료 봐주기’

순천시의회, 폭행 의원 징계 미뤄 반축

순천시의회가 동료 의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주윤식 의원의 징계를 위해 윤리특위를 열었으나 다음 회의 일정만 정하고 징계를 미뤄 반축을 하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윤리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오는 11일 3차 회의를 소집, 주 의원과 주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서모, 신모 의원 등을 폭행한 데 이어 서 의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았은 신 의원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상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야, ‘동료의원 갑싸기’ 등 우려의 시각이 높다. 또 주변에서 피해자인 서모, 신모 의원도 함께 징계를 한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특위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특위는 이번 의원 폭행사건을 반면 교사로 삼아 선진적 활동을 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새벽 0시 30분경 순천시내 도로에서 서 의원을 폭행한 데 이어 서 의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았은 신 의원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상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매각 물건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2타경 17552	3	영광군 영광읍 덕소리 828-2 1246㎡	답	33,952,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동소 828-3 1236㎡	답	33,95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5	동소 829 1762㎡	답	27,54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6	동소 829-3 1096.9㎡	답	52,071,27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20381	1	영광군 법성면 용성리 963-2 2479.2㎡	답	52,071,27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963-4 1199.2㎡	답	52,071,27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20978	1	나주시 다시면 신갈리 36 1828㎡ [공유지상권]	답	2,402,080	일괄매각, 공유지상권대수권행위사제한
	2	동소 965-1 1220㎡ [목축·개장지분내용동일][목축·개장지분내용동일]	전	2,402,08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963-5 1816㎡	답	87,750,000	정도구역지속
2012타경 25119	1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202-10 650㎡	대	5,314,000	정도구역지속
	2	동소 202-27 395㎡	임야	5,314,000	정도구역지속
2012타경 26488	1	나주시 반남면 성계리 172 1410㎡	답	17,472,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172-19 510㎡	답	17,472,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359 261평 [물건번호2: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28,805,200	일괄매각, 위치지정
2012타경 28594	1	영광군 구서면 남계리 528 633㎡	전	5,558,680	공유자우선매수권
	2	동소 526-1 48㎡ [현황: 임야도로]	전	5,558,680	공유자우선매수권
2012타경 28064	1	나주시 봉황면 송림리 135-4 10787㎡ [분양]	임야	4,418,7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135-4 10787㎡ [분양]	전	4,418,7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28521	1	나주시 세지면 원동리 39-2 707㎡	전	8,48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39-2 707㎡	전	8,48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30982	1	곡성군 삼기면 원동리 674-3 440㎡ [현황: 임야]	답	5,7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674-3 440㎡ [현황: 임야]	답	5,7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31121	1	화순군 도안면 지월리 317-4 1136㎡ [현황: 임야]	답	18,516,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317-4 1136㎡ [현황: 임야]	답	18,516,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매각 물건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2타경 28941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봉정원길로 15, 지하층 1층 116호 [월세대]	근린시설	425,000,000	일괄매각
	2	동소 116호 [월세대]	근린시설	425,000,000	일괄매각
2012타경 30388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봉정원길로 15, 지하층 1층 116호 [월세대]	근린시설	3,104,000,000	[우산동, 콜롬버스]
	2	동소 116호 [월세대]	근린시설	3,104,000,000	[우산동, 콜롬버스]

매각 물건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2타경 17552	1	영광군 영광읍 덕소리 832 1242㎡ [분묘소]	창고용지	105,350,280	일괄매각, 목축3종
	2	동소 832 191.07㎡	창고용지	105,350,280	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832-1 1360㎡	답	2012타경20381 [별첨]	
2012타경 30807	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3-1 50.2㎡	대	255,272,630	일괄매각, 도시계
	2	동소 163-1 50.2㎡	정토	255,272,630	혁신도시로지속